



이 자 영 | (주)환경디자인
도시디자인실장
(lj3331@hanmail.net)

타임슬립 드라마, 구라시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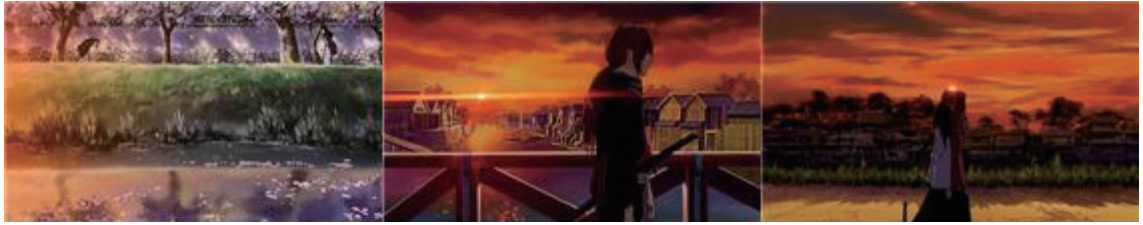


“검은 흥기, 검술은 살인술
아무리 멋진 미사어구나 대의명분으로 치장해도, 그게 진실이지.
아가씨가 말하는 소리는,
한번도 자기 손을 더럽혀 보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꿈같은 소리에 불과해.
하지만 난 그런 진실보다도
아가씨가 말하는 꿈같은 소리가 더 맘에 드는 걸..”

여기 한 사내가 있다. 붉은 머리, 얼굴의 십자상처 그리고 긴 칼을 지닌 그는 시대 최고의 칼잡이, 히무라 켄신, 일명 발도제라 불린다. 메이지유신시대에 태어난 그는 환란 속에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남았고, 다시는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자, 가엾고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고자, 역날검을 휘두른다. 그렇지만 피를 부를 뿐, 자신이 정의를 위해 죽인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이인 것을.. 만화는 광기어린 전쟁이 빚어낸 비참한 시대상을 배경으로 한 사무라이의 상처와 번뇌, 사랑과 성장을 섬세한 그림과 절제된 대사로서 보여준다. 바람의 검심이다. 그럼 잠시, TV시리즈이자, 영화로도 개봉했던 이 만화의 스틸컷을 감상해 보자.



주인공 켄신은 우연히 자신이 죽인 남자의 약혼녀를 죽음에서 구하고 보살피게 되면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게 된다. 그러나 여자는 자신의 약혼자를 죽인 켄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어디 미움대로 되던가? 여자 역시 켄신을 사랑하게 되고 만 것이다.



강은, 만화에서 주로 낭만적인 장소로 그려진다. 사랑을 나누고, 그리움을 실어 보내는 그런 곳...



결국, 켄신이 처음 사랑한 그 여자는 켄신을 차마 죽이지 못했고, 오히려 켄신을 대신해 죽는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잔인한 만화에서, 피는 마치 꽃처럼 선홍색을 띄며, 화면에 흩뿌려진다. 벚꽃처럼... 피의 잔인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작가의 감각이 돋보인다.



타임슬립 드라마, 구라시키 이야기

만화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나 보는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스무살,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알게 된 일본 애니메이션은 오히려 어린이나 청소년보다 어른들을 위한 만화였다. 만화가 던져주는 메시지들의 수준도 높았고 사람을 죽이는 장면은 잔인했으며, 사랑은 어려웠다. 철학적이면서도 재미있고, 무겁지도 가볍지만도 않은 그런 만화... 만화 속 대사 하나 하나는 시와 같았고, 그림 하나하나의 감정 전달력은 막강했던 바람의 검심은 나를 사로잡았다. 일본어 한번 배우지 않은 나에게 일본어로 된 만화주제가 통째로 외우게 했으나... 그리고 이제 막 인터넷이 자리 잡기 시작한 그 시절,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일본의 애니메이션 파일을 주고받는 것은 상당히 트렌디한 문화였던 것 같다. 이렇게 싹트기 시작한 인터넷 문화의 홍수 속에서 함께했던 만화, 바람의 검심, 주인공

공 히무라 켄신.

그리고 십오년이 흘러, 일 때문에 방문한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에서 난 켄신과 마주한 듯했다. 골목을 돌 때마다 무사들이 튀어나올 것 같았고, 저 멀리 무사들이 달려오는 듯, 나막신들이 돌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상상이 되는 그런 곳... 때마침, 다리 위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사진촬영을 하며, 주인공 켄신과 토모에처럼 사랑을 피워내고 있었다. 과거 모습 그대로, 질서정연하게 서있는 건축물들과, 여전히 평화로운 강의 풍경... 너무나 흔한 표현이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것만 같은 이 흥분과 설렘... 구라시키에서 받은 뜻밖의 선물이었다. 물론 만화의 정확한 배경은 구라시키는 아니다. 오히려 교토일 것이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구라시키에서 바람의 검심을 느낀 것은, 필자가 교토를 가보지 못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지만(교토는 정말이지 별로 가보고 싶지 않다...), 사실 그런 팩트가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는 법이다.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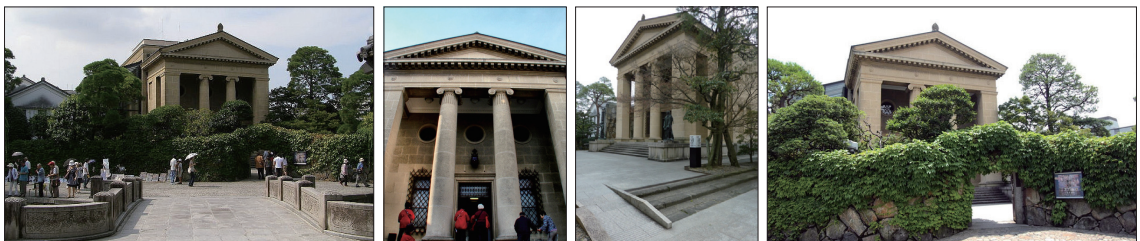
하나 영화나 음악과 같은 장르는 그런 팩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팩트로부터 받는 필링(Feeling From Fact)’이 중요한 것이니, 필링대로 느끼면 그만 아닌가. 서두가 길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라시키 탐방기를 펼쳐보자. 그리고 시간이 가면 꼭 한번 보길 바란다. 영상물이든 만화책으로든... ‘바람의 검심’. 조금이나마 일본을 좋아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라시키는, 도시경관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은 답사를 가게 되는 곳이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구라시키는 제도에 의한 경관관리의 대표적 사례이다. 구라시키 미관지구내 건축물들은 시간의 흐름을 잊은 듯 1800년대의 건축양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의 세장요소 하나하나 미관지구내 건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구라시키 미관지구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부분과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며, 각각의 규제, 지원내용이 조금은 다르나, 결론은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키 큰 빌딩이나 현대적 건물은 없다. 또한 지구내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공방이나 크고 작은 음식점들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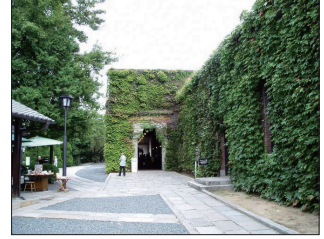
그리고 구라시きの 중요한 거점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구라시きの 부유한 상인이 지은 오히라미술관과 유럽분위기의 아이비 스퀘어이다. 여기서 ‘오히라’ 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일찍이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유럽에서 유학을 하게 된다. 그렇게 몸으로 체화된 유럽의 문명을 자기의 고장에 들고오자 하는 열정으로, 전 세계 미술품들을 수집하게 되고 드디어 개관하게 된 오히라 미술관은 일본에 개관한 최후의 서양식 미술관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고갱, 모네, 피카소의 작품들이 있으며, 그 유명한 ‘칼레의 시민’ 동상 중 시민 1명이 있다고 한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지식층이 어떻게 지역에 지적 재산을 공유하고 공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바람직한 사례가 아닐까 한다. 이런 오히라와 같은 부자 한명이 미치는 몇 백 년에 걸친 지역의 영향은 참 대단하지 않은가? 그리고 보면, 일본에는 이런 사례들이 유독 많은 듯 하다. 다음에 소개할 나오시마도 그렇고... 반면 우리나라는 재단을 세워서 장학생을 키우는 사례는 많이 들어봤어도, 개인의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례는 드문 경우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이비 스퀘어는 마치 유럽의 전통적 광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이름 그대로 담쟁이덩굴로 덮인 담장과 건축물이 특징적이다. 역시 오히라의 유럽에의 향수를 담고 있는 장소인 듯싶다. 다시 한번 일본 사람들의 구라괴를 향한 뜨거운 애정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히라의 애향심도 대단하였지만, 구라시きが 미관지구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한 구라시きの 시민들이다. 으레, 그린벨트는 물론 미관지구, 경관지구 등을 지정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지원도 있지만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걱정하게 되어 많은 반발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런 전통유산을 지켜내고자 했던 시민들과 NGO들, 그리고 아낌없는 행정력을 지원한 지자체까지, 칭찬받아 마땅한 주체들이다. 지역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치 있는 판단을 내린 성숙한 시민정신은 우리시대 절실한 과제이지 않을까.



서양미술관의 분위기를 풍기는 오히라미술관 전경
지어졌을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장소로 이슈가 되었을 것이라 예측된다.



유럽의 광장 그대로 가져다 놓은 듯한 아이비 스퀘어.
구라시키천에서 이어져 스퀘어를 관통하는 수로와 녹색벽이 상그러움을 더한다.



구경거리 가득한 예쁜 골목길.
뜻하지 않게 맞닥뜨리는 정원과 소품들에 한번 더 놀란다.

자, 구라시키의 진짜 매력은 지금부터다. 골목탐방. 굳이 바람의 검심을 보지 않은 사람이어도 타임캡슐처럼 잘 보관된 에도시대 거리분위기에 취해 이 골목, 저 골목 쏘다니는 재미가 술술하다. 전국에 깔린 패스트푸드나 커피숍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기자기한 먹거리와 작은 상점들 구경에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 모른다. 또 걷다보면 많은 사잇길을 보게 되는데, 호기심에 들어선 골목에선 어김없이 예쁜 정원이나 소품들이 반겨준다. 건축물들의 정원이 골목과 엮



아름다운 구라시키 하천풍경.
 신록이 우거져도 아름답겠지만, 나무 실루엣 사이로 드러나는 건축풍경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듯.

여 흥미로운 길찾기가 가능한 도시구조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정도의 골목길은 우리나라 전주 한옥마을에도 있다. 북촌한옥마을이나 가로수길도 그렇고,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구라시키가 이들과 다르게 백미인 것은 바로 이 하천(구라시키천)의 풍경이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다는 점이 아닐까….

하천은 아주 오래전 돌로 축조되었다. 그때 당시 이 구라시키천으로 많은 물자들이 운송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운하였으며, 천변으로 많은 창고들이 지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창고들은 지금 리모델링되어 상점이나 관광 관련 시설로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하천변으로 늘어진 나무들이 낭만적인 수변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으며, 세월의 나이를 덧입은 천변의 다리와 계단은 나이만큼의 추억과 이

야기를 간직한 듯 하다. 뱃사공이 주는 모자를 쓰고 나룻배에 앉아 즐기는 뱃놀이는, 사실 크지 않은 하천이어서, 반전도 없는 뻥한 풍경일텐데(천변 길에서 보여지는 풍경 그대로…), 사람들이 끌어당긴다. 그리고 보니 구라시키에서의 놀이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다. 자극은 없다. 그러나 골목에서의 소소한 즐거움과 에도시대로 돌아간 듯한 영화적 프레임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지위를 즐긴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이곳을 바라보는 즐거움의 극치는 다리 위에서 만난 신혼부부들을 만나는 타이밍이다. 전통의상을 입은 신혼부부는 사진을 찍는 건지, 영화를 찍는 건지 표정이 심각하다. 행동은 느리고 신중한 게 마치 코스프레 놀이를 하는 것 같다.

굳이 경관적으로 분석해보자면, 하천의 폭은 풍경을 만들어내기 가장 적당한 폭을 지니지 않았나 싶다. 또한 건축물



구라시키천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로맨틱한 장소로 그만이다.
비람의 감심 켄신과 토모에에게 그랬듯이...

의 높이와 나무의 스케일이 적절하게 리듬을 타고 있다. 천변에 나란히 늘어선 에도시대 건축물들이 오선지를 그리듯 베이스 멜로디를 그리고 나무들은 음표인 냥... 이 아름다운 구라시키천은 십년, 백년이 지나도 이렇게 에도시대 그대로이겠지...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옷차림만 바뀌어 있을 테지... 내 추억의 만화 속 장면들이 오버랩 되어 더욱 즐거웠던 시간여행, 오카야마에 있는 작은 마을, 조금 딱딱하더라도, 다시 한번 구라시키에서 느꼈던 점들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

1. 지역의 전통문화를 지켜낸 훌륭한 시민들과 지자체
2. 지식인의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바람직한 사례
3. 도심에서의 오래된 하천이 주는 매력
4. 정원과 길이 엮인 즐거운 골목탐방
5. 콘텐츠가 어떻게 지역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일본의 아주머니들이 배용준의 겨울연가 촬영지를 찾아다니는 심리를 조금은 알 듯 하다...)

케이블 티비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자랑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이 있다. 다음 버전은 1994라고 한다. 굳이 먼 과거가 아닌, 가까운 과거 속에서도 우리의 이야기꺼리는 참 많은 것 같다.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몇 백년 전의 도시풍경을 힘있게 복원하려고 집착하지 말고, 팔십년대나 구십년대 풍경으로도 얼마든지 타임슬립할 수 있을 것이다.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콘텐츠의 발전처럼, 지역의 풍경들이 다채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하천은 어느 지역에서든, 어느 시대이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와 과거를 관통하는 물줄기이자,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푸른 자연으로... 한번 더 여행하고 싶은 구라시키 타임슬립, 이제 다시 추억 속으로, 안녕!

